

나주시, 축산 악취 개선 우수사례 발표

축산악취개선협의회 운영·5개 컨설팅 농가 암모니아 수치 저감 등 “축산농가 노력과 의지에 따라 저감 효과 달라진다는 결론 도출”

광주·전남(빛가람) 공동 혁신도시 인근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나주시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최근(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전국 10개 축산악취 우려지역 악취개선 성과확산 보고회' 자리를 통해 혁신도시 악취 민원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발표했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개최된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농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10개 축산 악취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별 악취개선 활동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농식품부, 지자체, 생산자·시민단체, 농·축협 관계자, 현장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보고회를 통해 2005년 혁신도시 조성 및 16개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입, 악취 민원 증가 등에 따른 축산 악취 개선책 추진 배경을 비롯해 주요 내용 및 성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악취 민원은 도시조성 초기에 비해 대폭 감소했지만 혁신도시와 인접한 봉황면 소재 돈사, 재활용시설의 악취 민원이 증가하면서 축산업 입지 축소와 주민 간 갈등을 불러오는 등 근본적인 축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때마침 나주 혁신도시가 농식품부의 축산 악취 개선지역에 선정되면서 전년도,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혁신도시 6km반경 양돈농장 5개소를 대상으로 지정해 악취 개선 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에는 전남도,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단체·농가 등 민관이 참여한 축산악취협의체를 발족, 지난 4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대상 농가별 악취관리계획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총 7차례의 현장 방문 컨설팅과 암모니아 수치를 조사, 측정했다.

악취 주원인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수치는 총 7회에 걸친 측정 결과 발생평균치 28.9ppm에서 10월 말 최종 20.5ppm으로 29.1%(8.4ppm)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민원도 지난 해 나주시 전체 민원 131건에서 올해 들어 88건으로 33%감소했다.

민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황면의 경우 같은 기간 90건에서 47건(48%) 줄어들었으며 이 중 악취개선 대상농가(5개소) 민원도 16건에서 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역주민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3개월 전후 악취 개선 체감정도)에서도 34명(57%)이 '3개월 전과 비

교해 개선됨을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축산 환경 개선 컨설팅을 100%이행한 농가와 33%이행한 농가를 비교해보면 암모니아 수치 등 개선 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며 “축산 악취 관리의 축산농가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저감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축산 악취 50%저감을 목표로 컨설팅 대상농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도 50억원 규모 축산악취개선사업이 도내 평가 1위로 농식품부 공모에 제출돼 사업 선정 시 가축분뇨사업 등 악취 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김치를 배우고 구례의 정을 나누다

구례군,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성과물 전시회 개최

구례군은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을 통해 김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사)전통우리음식진흥회를 지원하여 약 30명을 모집, 6월부터 김치 제조사 자격1급 취득 및 김치 지도감사자격2급 취득을 위해 필기와 실기교육을 진행하였다.

사)전통우리음식진흥회를 통한 교육은 약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12월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그간 교육을 통해 배우고 만들어왔던 김치를 주제로 성과물 전시회를 11월 23일부터 구례군 5일시장 내 청년점포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18종류의 김치가

전시되었다. 군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여러 종류의 김치를 한 곳에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자랑했다.

사)전통우리음식진흥회는 단순히 전시회뿐만 아니라 구례의 정을 나누고자 수육 등을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러 종류의 한국 김치를 간접적으로 한 번에 체험할 수 있고 공연 및 시식을 통해 구례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코로나19,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정담양! 우리 모두가 지켜냅니다.



최형식 담양군수, 군민 위한 적극행정 독려

최형식 담양군수가 23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형식 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원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로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적극행

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면 선도적인 공적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군은 올해 3월 ▲적극행정 제도 정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장구 운영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곡성군이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역 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 행정리를 대상으로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청 주관 하에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내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규모, 분포, 구조, 경영형태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는 국가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이자 향후 5년간 실시할 각종 통계조사의 기반으

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스마트팜 등 농산어촌 사회변화, 시설(온실) 유행, 자동화 시설 현황, 행정리 대중교통 실태,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농림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등 비대면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미응답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한다.

곡성=양해영기자

귀농귀촌 1번지 장성군, 전남 최우수 인증

장성군이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며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도는 ▲귀농귀촌 유치 및 사업추진 실적 ▲귀농귀촌 전담팀 인력 구성 ▲귀농산어촌 농가수 대비 자체사업 예산 비율 ▲누리집(홈페이지) 활용 ▲귀농귀촌 교육 및 정착지원사업의 5개 항목과 11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21개 시·군의 귀

농귀촌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장성군은 2013년 귀농귀촌 전담팀 신설 이래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추진해, 귀농귀촌인들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귀농인이 선도 농가에서 직접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대 5개월간의 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실습 기간 동안에는 월 80만원을 지급해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준다.

기동취재본부

화순사랑카드, 젊은 층에 인기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자동 소득공제 적용

화순군이 이달 2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 ‘화순사랑카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화순사랑상품권 활성화, 종이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드 상품권을 도입하고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화순사랑카드 발급과 충전은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지역상품권 chak’을 이용하거나, 농협 등 대행 기관 창구에서 신청·충전하면 된다.

화순사랑카드는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발급, 충전, 잔액 관리 등을 앱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상품권 잔액이 부족하면, 연결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



또한, 종이 상품권은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 하지만, 화순사랑카드는 현금영수증 요청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30%가 적용된다.

상품권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종이 상품권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품권 발행과 판매 비용 환전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정의를 품으로 광주

GWANGJU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